

미용사의 지각된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미자¹ · 한삼성² · 유왕근^{2*}

¹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²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Hair Dressers

Mi-Ja Lee¹ · Sam-Sung Han² · Wang-Keun Yoo^{2*}

¹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²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airdressers and their respective leve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5 hairdressers working in beauty shop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ver the period from July 1 to July 31.

Method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hairdressers.

Results: This stud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fatigue level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age, family type, education level, work period, work position, and fatigue level in the past one week.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erceived fatigue were education level, work period, and fatigue level in the past one week.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age and fatigue level in the past one week. The level of perceived fatigue among hairdressers tended to be higher than other workers, and their level of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generally lower.

Conclusions: The improvement of the work environment, such a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a proper workload considering workers' characteristics and strengthening of exercise programs to reduce the fatigue level and promote health practices among hairdressers is needed.

Key words: exercise, perceived fatigue, hair dressers, health promotion behavior, women workers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만성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은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통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올바른 건강

증진행위 실천이 상병발생과 조기 사망의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Pender, 1996; Yoon & Kim, 1999).

한편, 통계청의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의 근로시간인 연간 2,024시간은 OECD 37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긴 반면,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나타났다(KOSTAT, 2018). 그러나 수면시간은 이와 반비례한

*Corresponding author: Wang-Keun Yoo, Tel: 053-819-1411, Fax: 053-819-1412, E-mail: wkyoo@dhu.ac.kr

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1 Hannydae-ro, Gyeongsan-si, Gyeongbuk 38610

Received: November 1, 2018, Revised: December 7, 2018, Accepted: December 10, 2018

© Mi-Ja Lee <https://orcid.org/0000-0003-1627-5802>

© Sam-Sung Han <https://orcid.org/0000-0002-4306-6021>

© Wang-Keun Yoo <https://orcid.org/0000-0001-7241-5369>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다.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1.3%가 피곤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90% 이상이 피로를 호소했으며, 남녀별로는 남자 80.3%, 여자 82.2%가 피곤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OECD 국가의 일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22분으로 우리나라보다 33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KOSTAT, 2015). 따라서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유추해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근로시간은 긴 반면에 수면시간은 짧아 장기적인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특히 노동의 강도가 강한 경우 심각한 피로를 인하여 건강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미용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업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장시간 서서 단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높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용인으로서의 전문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Song, 2012).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 스트레스(Lee & Lee, 2004; Kim, 2005) 혹은 이직 욕구(Cheong et al., 2004), 근무환경이나 건강상태(Kim et al., 2000; Kwak & Yoo, 2000; Ryu & Na, 2000) 등이 대부분이고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사의 피로도와 건강증진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미용사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건강증진행위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업 종사자를 임의표본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명의 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가지고 총 220명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시행한 후 부실하게 응답한 25명을 제외한 1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종속변수: 지각된 피로도 및 건강증진행위

지각된 피로도 측정도구는 일본 산업위생 협회의 피로 자각증상 관련 결과 등을 기초로 Noh(1997)의 연구에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피로 9문항, 정신적 피로 6문항, 신경 감각적 피로 4문항의 총 19문항을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지각된 피로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928로 나타났으며, 하부 항목별로는 신체적 피로 0.884, 정신적 피로 신경 0.824, 감각적 피로 0.761이었다.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Walker et al.(1987)이 기존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HPLP II를 Seo(2001)가 변환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 항목으로는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섭취 9문항, 영적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등 총 50문항을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960으로 나타났다. 하부 항목별로는 건강책임 0.841, 신체활동 0.935, 영양섭취 0.843, 영적성장 0.849, 대인관계 0.806, 스트레스 관리 0.814이었다.

2)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상자의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40대 ③ 50대 이상)',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무배우자)', '최종학력(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제 대졸 이상)', '경력(① 1년 미만 ② 1~4년 ③ 5년 이상)', '직위(① 인턴 ② 중상 ③ 디자이너 ④ 실장 및 원장)', '근무시간(① 9시간 이하 ② 10~11시간 ③ 12시간 이상)' 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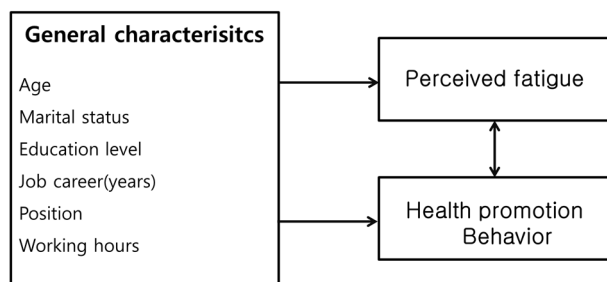


Figure 1. Study Design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및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또한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을 보정한 후 미용사의 피로도 및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Version 23.0K, USA)

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인 군이 평균 2.64점으로 나타나 ‘30대~40대’ 2.22점, ‘50대 이상’ 2.23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p<0.001$). 결혼상태에 따른 지각된 피로도는 ‘무배우자’가 2.61점으로 ‘기혼’의 2.21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2.2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4년제 대졸이상’이 2.63점으로 나타나 ‘4년제 대졸이상’인 군이 지각된 피로도가 높았다($p=0.001$). 경력에 따른 지각된 피로도는 ‘1년 미만’ 2.56점과 ‘1~4년’ 2.6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이 2.22점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위는 ‘실장 및 원장’이 2.20점으로 나타나 ‘인턴’ 2.63점,

Table 1. The perceived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erceived fatigue(M \pm SD)	t or F(p)
Total		195	2.44 \pm 0.57	
Age	≤ 20	100	2.64 \pm 0.54 ^a	14.858 (<0.001)
	30-40	62	2.22 \pm 0.48 ^b	
	≥ 50	33	2.23 \pm 0.58 ^b	
Marital status	married	83	2.21 \pm 0.52	-5.144 (<0.001)
	partnerless	112	2.61 \pm 0.54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65	2.28 \pm 0.61 ^a	7.052 (0.001)
	College	65	2.40 \pm 0.49 ^{ab}	
	above University	65	2.63 \pm 0.55 ^b	
Work experience(year)	< 1	48	2.56 \pm 0.62 ^a	13.369 (<0.001)
	1-4	60	2.65 \pm 0.50 ^a	
	≥ 5	87	2.22 \pm 0.50 ^b	
Position	intern	70	2.63 \pm 0.58 ^a	8.921 (<0.001)
	assistant	21	2.53 \pm 0.53 ^{ab}	
	designer	23	2.58 \pm 0.47 ^a	
	above chief designer	81	2.20 \pm 0.51 ^b	
Working hours	≤ 9	27	2.49 \pm 0.54	0.199 (0.820)
	10-11	141	2.42 \pm 0.56	
	≥ 12	27	2.47 \pm 0.62	

^{ab}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중상’ 2.53점, ‘디자이너’ 2.5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차이를 보였다($p<0.001$). 한편, 근무 시간에 따른 지각된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82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 2.08점, ‘30대~40대’ 2.31점, ‘50대 이상’이 2.92점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01$). 결혼상태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기혼’이 2.56점으로 ‘무배우자’의 2.1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경력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1년 미만’ 2.14점과 ‘1년~4년’ 2.0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이 2.5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위는 ‘실장 및 원장’이 2.56점으로 나타나 ‘인턴’ 2.12점, ‘중상’ 2.07점, ‘디자이너’ 2.1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p<0.001$). 한편, 최종학력과 근무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요인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298$, $p=0.080$).

3.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지각된 피로도 및 그 하부요인과 건강증진행위 및 그 하부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내어 지각된 피로도 및 그 하부요인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및 그 하부요인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4. 미용사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용사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432$, $p<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피로도의 변동을 17.5%정도 설명하였다(Adjusted- $R^2=0.175$).

Table 2.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Health promotion behavior(M±SD)	t or F(p)
	Total	195	2.29±0.54 ^{abc}	
Age	≤20	100	2.08±0.44 ^a	43.796 (<0.001)
	30-40	62	2.31±0.42 ^b	
	≥50	33	2.92±0.54 ^c	
Marital status	married	83	2.56±0.55	6.206 (<0.001)
	partnerless	112	2.10±0.45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65	2.37±0.62	1.220 (0.298)
	College	65	2.28±0.54	
	above University	65	2.22±0.45	
Work experience(year)	<1	48	2.14±0.45 ^a	20.403 (<0.001)
	1-4	60	2.05±0.41 ^a	
	≥5	87	2.54±0.57 ^b	
Position	intern	70	2.12±0.41 ^a	13.134 (<0.001)
	assistant	21	2.07±0.42 ^a	
	designer	23	2.10±0.56 ^a	
	above chief designer	81	2.56±0.56 ^b	
Working hours	≤9	27	2.45±0.65	2.559 (0.080)
	10-11	141	2.24±0.49	
	≥12	27	2.42±0.64	

^{abc}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s	perceived fatigue	physical fatigue	mental fatigue	neuro-sensory fatigue	health promotion behavior	health responsibility	physical activity	nutrient intake	spiritual growth	relationship	stress management
perceived fatigue	-										
physical fatigue	0.951 [‡]	-									
mental fatigue	0.888 [‡]	0.751 [‡]	-								
neuro-sensory fatigue	0.824 [‡]	0.717 [‡]	0.614 [‡]	-							
health promotion behavior	-0.372 [‡]	-0.341 [‡]	-0.402 [‡]	-0.225 [‡]	-						
health responsibility	-0.254 [‡]	-0.220 [‡]	-0.301 [‡]	-0.144 [*]	0.860 [‡]	-					
physical activity	-0.255 [‡]	-0.250 [‡]	-0.237 [‡]	-0.176 [*]	0.831 [‡]	0.627 [‡]	-				
nutrient intake	-0.304 [‡]	-0.314 [‡]	-0.308 [‡]	-0.138 [*]	0.835 [‡]	0.708 [‡]	0.627 [‡]	-			
spiritual growth	-0.364 [‡]	-0.311 [‡]	-0.402 [‡]	-0.256 [‡]	0.827 [‡]	0.643 [‡]	0.588 [‡]	0.557 [‡]	-		
relationship	-0.315 [‡]	-0.229 [‡]	-0.427 [‡]	-0.191 [‡]	0.760 [‡]	0.630 [‡]	0.491 [‡]	0.497 [‡]	0.698 [‡]	-	
stress management	-0.399 [‡]	-0.392 [‡]	-0.394 [‡]	-0.239 [‡]	0.899 [‡]	0.726 [‡]	0.724 [‡]	0.740 [‡]	0.721 [‡]	0.609 [‡]	-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4.** Effects factors of the perceived fatigue

Variables	Classification	B	β	p -value [*]
Age	≤ 20 [†]			
	30-40	-0.191	-0.158	0.146
	≥ 50	-0.026	-0.017	0.877
Marital status	married [†]			
	partnerless	0.227	0.199	0.077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			
	College	0.166	0.138	0.090
	above University	0.345	0.288	0.001
Work experience(year)	< 1 [†]			
	1-4	0.243	0.199	0.050
	≥ 5	0.032	0.028	0.862
Position	intern [†]			
	assistant	-0.118	-0.065	0.446
	designer	0.039	0.022	0.800
	above chief designer	-0.037	-0.032	0.841
Working hours	≤ 9 [†]			
	10-11	0.052	0.041	0.654
	≥ 12	-0.023	-0.014	0.873
F(p)		4.432(<0.001)		
Adjusted-R ²		0.175		

* p -value :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ference classification

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822로 독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공

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값이 최대 6.106, TOL값이 최하 0.164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Effects factors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s	Classification	B	β	p -value*
Age	$\leq 20^\dagger$			
	30-40	0.103	0.089	0.368
	≥ 50	0.636	0.442	<0.001
Marital status	married [†]			
	partnerless	-0.079	-0.072	0.477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			
	College	0.020	0.018	0.812
	above University	-0.088	-0.077	0.314
Work experience(year)	<1 [†]			
	1-4	-0.103	-0.088	0.345
	≥ 5	0.097	0.090	0.542
Position	intern [†]			
	assistant	-0.058	-0.033	0.670
	designer	-0.152	-0.091	0.260
	above chief designer	-0.040	-0.037	0.801
Working hours	$\leq 9^\dagger$			
	10-11	-0.199	-0.165	0.049
	≥ 12	-0.040	-0.026	0.747
F(p)		8.538(<0.001)		
Adjusted-R ²		0.318		

* p -value :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 Reference classification

고려된 변수들 중 미용사의 피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최종학력(고졸 이하 vs 4년제 대졸이상: $B=0.345$, $p=0.001$)과 경력(1년 미만 vs 1~4년: $B=0.243$, $p=0.050$)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538$, $p<0.001$), 고려된 독립변수가 건강증진행위의 변동을 31.8% 정도 설명하였다(Adjusted-R²=0.318).

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705로 독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 값이 최대 6.106, TOL 값이 최하 0.164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려된 변수들 중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20대 이하 vs 50대 이상: $B=0.636$, $p<0.001$) 및 근무시간(9시간 이하 vs 10~11시간: $B=-0.199$, $p=0.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직업 특성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미용사의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미용사의 피로도에는 '20대 이하'인 경우, '무배우자'인 경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력과 직위가 낮은 경우에 지각된 피로도는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미용사들은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한계가 모호해서 다양한 단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Han et al., 2000), 동시에 미혼과 연령이 낮은 군이 연령이 높은 군에 비하여 업무종료 후 음주나 흡연

등 불건강한 행위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가 높아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용사들의 직책이 원장에 비해 스태프와 디자이너의 경우 만성피로 정도가 높고(Rho & Park, 2008), 경력이 많은 군에 비해 '1년 미만'인 경우 지각된 피로 정도가 높아(Choi, 2004)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사들의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경력이 적고 그 직위가 낮은 경우에는 미용업무에 대한 낮은 숙련도와 업무 특성 상 부적절한 작업 자세,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 시간, 적은 임금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며(Kim et al., 2015; Jung et al., 2017), 특히 스태프의 경우 원장과 디자이너의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를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 연령이 많고 기혼 여성일수록 피로에 높게 노출되며(Lee & O, 2010), 원장의 경우 그 피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와 직책이 높을수록 피로 자각증상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Kang, 1999)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대부분 소규모의 미용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미용실이 소규모인 경우 원장이 디자이너와 보조, 스태프의 업무를 모두 행해야 하는 점과 고객관리 및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까지도 책임져야 할 하므로 육체적인 노동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오는 부담감이 작용하여 피로도가 크다는 것이다(Lee & O, 2010). 따라서 미용실의 규모에 따라 미용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변량 분석을 통한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경력과 직위가 낮은 경우에 건강증진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용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인 경우, 미혼인 경우, 경력이 낮고 직위가 낮은 경우에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Park et al., 2004; Yoon et al., 2006). 미용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 선행연구가 미미한 관계로 미용사와 유사한 미용업 종사자인 피부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Yoo & Lim(2013)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고 기혼인 경우,

직급이 원장이고 월 소득이 많을수록, 현 직장 근무연수와 경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Hong(2001)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에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별로는 원장의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태프가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미용사들의 연령이 낮다면 대체적으로 미혼이면서, 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오는 지지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며,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의 압박감에 의해 느끼는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반면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이면서, 경력이 길고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건강증진행위에 적극적이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미용사들의 지각된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피로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연령과 결혼상태, 경력 및 근무직위에 따라 느끼는 지각된 피로 정도가 높을 경우 건강증진행위는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지각된 피로도의 경우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최종학력 및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연령 및 근무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측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조사된 대상 지역이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업 종사자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좀 더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자를 고려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미용사들은 직업 특성상 지각된 피로도가 높고, 건강증진행위의 실천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 연령이 낮고 미혼이면

서, 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경우 지각된 피로도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용사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증진행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령 및 결혼상태, 경력과 직급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배정과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미용사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References

- Cheong HS, Lee SY, Yoo WG.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beauty parlor staffs. *J Kor Soc Fashion Beau* 2004;2(3):27-35
- Choi YH.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fatigue level of hair salon employees. *J Kor Soc Cosmetol* 2004;10(2):133-144
- Han YS, Kim EH, Lee CE. A study of the level on working cosmetologists fatigue degree in seoul. *J Kor Soc Cosmetol* 2000;6(3):689-704
- Hong SJ.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Practice of Sanitary Management of Skin Care Worker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1. p. 39-40
- Joung NK, Jung Jh, Phee YG. Musculoskeletal pain levels among hairdressers and affecting factors. *JKSOEH* 2017;27(2):130-137
- Kang SK. Symptoms of fatigue in beauticians. *J Kor Soc Cosmetol* 1999;5(1):7-22
- Kim CD. Affecting factors on stress and health status of hair dressers. *J Kor Soc Cosmetol* 2005;11(3):292-299
- Kim JH, Phee YG, Lee SW. A study on pain characteristics in parts of the hand among estheticians. *JKSOEH* 2015;25(2):220-228
- Kwak HS, Yoo HJ. A comparative study on beautician s job conditions and recognition in korea and japan. *J Kor Soc Cosmetol* 2000;6(1):201-213
- Lee HY, O IY. Psychosocial stress (PWI-SF) and fatigue (MFS) research based on hairdresser's working characteristics. *J Kor Soc Cosmetol* 2010;16(2):411-419
- Lee MJ, Lee SN. A study of determinative factors for the beautician's stress. *J Kor Soc B&A* 2004;5(1):5-19
- Nam HJ, Kim YS, Kim ES. The study of experiences of beauticians in the abortion. *J Kor Soc Cosmetol* 2000;6(3):655-673
- Noh TY. A Study on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1997. p. 53-63
- Park J, Kim HH, Kim SW. The related factors to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ome hair dressers. *KHEP* 2004;21(2):117-131
- Pender NJ. Expressing health through lifestyle patten. *Nursing Science Quarterly* 1996;3(-):115-122
- Rho HS, Park J.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chronic fatigue among some hair dressers. *J Kor Soc Cosmetol* 2008;14(2):595-604
- Ryu JW, Na YS. Inspection about hairdresser s health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condition. *J Kor Soc Cosmetol* 2000;6(3):727-752
- Schlessinger RB, Bohning DE, Chan TL, Lippmann M. Particle deposition in a hollow cast of the human tracheobronchial tree. *J Aerosol Sci* 1980;8(2):429-445
- Seo HM. Construction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odel in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1. p. 126-128
- Song JO.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tress of Hair Dressers and Their Relating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of Korea, Gyeongsan. 2012. p. 75-79
- Statistics Korea.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per employee (OECD).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14_OECD
- Statistics Korea. Life time survey results for 201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4/index.board?bmode=read&aSeq=346875
- Walker SN, Sechrist KR, Pender NJ.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ing Research* 1987;36(-):76-81
- Yoo SJ, Lim JS.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health-promoting behavior in beauty & skincare industry workers. *J Kor Soc B&A* 2013;14(4):111-122
- Yoon BY, Yoo WK, Ko GS. A study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beauty parlor workers. *J Kor Soc Cosmetol* 2006;12(2):11-24
- Yoon SN, Kim JH. Health-promoting behaviors of the women workers 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 based on the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 *Korean J Occup Health Nurs* 1999;8(2):130-140